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과 간담회 개최

- 직접 사과하고 피해자 목소리 경청, 피해자 중심 문제해결 의지 밝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한 이후, 환경부 장관이 직접 피해자·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3주간 전국 7개 권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요청사항들을 파악해 왔다. 이어 4월부터 6월까지의 개별 의견 조사를 통해 합의 참여 희망 여부 등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 (관련 보도자료)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지역별 간담회 10회 실시…개별 의견조사 착수('25.4.08)

김성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환경부 장관 피해자단체 간담회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경진 (044-201-6750)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담당자	팀 장	신행수 (044-201-6742)
		담당자	전문관	최재석 (044-201-6744)
		담당자	사무관	옥예슬 (044-201-6813)



□ **배경**

-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신고된 24개 피해자단체 대표 면담

□ **개요**

- (일시) '25.8.6(수) 15:00~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참석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19개(대표 25명), 환경부장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주요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5	5'	■ 묵념(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추도) ■ 참석자 소개	환경보건정책과장
15:05~16:00	55'	■ 건의사항 청취 및 논의	참석자